

3. 유럽, '제3의 길'의 의미와 시사점

- (배경) 실업 증대, 사회적 불평등 증대 등 新자유주의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, 미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위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
- (성격) 시장 메카니즘을 중시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되, 실업등 시장 실패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정부 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유
- (시사점)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사나 문화에 맞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정립해야 하며, 경제적으로 유럽 수출 시장의 개척 뿐만 아니라 유럽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 진출이 모색되어야 함

□ 현황 및 배경

- (현황) 유럽 연합(EU) 15개국 중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국에서 사회민주주의 등 중도좌파가 정권을 획득함¹⁾
 -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,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,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을 들 수 있음
- (배경1) 실업 증대,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新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그 반동으로의 변화를 요구함
 - 1980년대 전후로 등장한 新보수주의정권에 의한 新자유주의적 개혁, 즉 공기업 민영화, 규제개혁,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, 사회복지 부담을 줄이는 재정긴축 등이 대량실업을 양산하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킴
- (배경2) 유러(Euro)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식의 순수시장적 자본주의와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서게 됨
 - 유러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경제권 및 일본 경제권과의 경쟁이 본격화함
 - 유럽 국가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경제 체제를 재편하기 시작함

1) 좌파를 국유화 및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자(및 공산주의자), 우파를 자본주의시장경제 지지자라고 한다면, 중도좌파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지지하면서도 정부 개입을 통해 그 모순을 완화·치유하고자 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. 그런데 현 유럽의 중도좌파는 과거 국유화와 사회복지를 주장하던 50~60년대의 중도좌파와도 다르다.

□ 주요 내용

- 시장 메카니즘이 갖는 경제적 효율성을 인정하지만, '시장 실패'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 - 특히 실업 문제의 치유가 긴급 현안으로 대두됨
- 이들(특히 영국의 블레어 수상)의 사상적 기초는 기든스(Anthony Giddens)임
 - 그의 논리에 의하면 기존의 좌우파 개념으로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, 환경이나 유럽통합 또는 (20세기 후반에 대두, 21세기에 지속될) 세계화가 던지는 도전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 함
 -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이동을 통제해야 하며,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의 통합을 유지해야 함
- (주요 경제 정책)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일정한 정도로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분담 정책과 경기부양 정책 등을 실시
 - 독일의 슈뢰더는 경제활성화(경쟁력 강화)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음
 - 영국의 블레어는 역시 경쟁력 강화와 'Welfare to Work'(일하려는 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)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

□ 성격 및 의의

- 통칭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, 과거의 사민주의(혹은 복지국가)와는 다름(이른바 '제3의 길'임)
 - 과거의 사민주의(중도좌파)가 국유 및 국영화,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한 실업 구제 등으로 특징지워진다면, 현 중도좌파는 민영화,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한 실업 구제 등으로 특징지워짐
- 시민사회의 자체적 연대 강화를 통한 사회개혁 선호(노사정 협약을 통한 경제 사회정책의 운영)
 - 블레어의 '신사회계약론'으로 대표되는데, 이는 네덜란드의 개혁 성공 사례에서

시사받은 것임

- ‘참여 시장경제론’: 공동체 중시, 집단이나 계급보다는 개인의 창의력 중시

- (역사적 의의) 냉전 종식 이후 자본주의체제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임

- 소련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에 이은 개방화·자유화의 바람 속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졌음
- 그와 동시에 미국식의 자본주의화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었음
- 유럽의 중도좌파 정권의 대두는 이러한 미국식 자본주의와 체제내 대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

□ 시사점

- ‘제3의 길은’ 아직 역사적 실험 단계에 불과함

- 블레어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광범한 사회민주주의 연대(‘중도좌파 국제 연대회의’)가 추진되고 있으나, 아직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검증받은 노선은 아님
- 그런 점에서 21세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새로운 정치·경제질서를 모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

-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

- 우리의 경우 미국과의 정치·경제·군사·문화 등 모든 면에서 유착도가 매우 높으며,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압력이 더욱 강화됨
- 우리의 역사나 문화, 관습에 맞는 경제 발전 모델의 정립이 시급함

- 유럽의 정치·경제체제의 변화는 우리의 對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

- 예컨대 유럽 수출 시장의 개척도 중요하지만, 향후 유럽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 진출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

(박 동 철 dcpark@hri.co.kr ☎724-4030)